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축제, 저희들도 함께 즐겨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교계의 어린이 및 청소년 단체와 중립학교들이 다채로운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해는 특히 사생대회와 백일장, 부처님 그리기 대회, 사경 공모, 탐들이 행사, 찬불가경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가 주를 이루 청소년들이 불교 문화를 통해 부처님 오신 참뜻을 기리며 축제 분위기도 만끽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봉축 문화행사 풍성

흥도 절로 신심도 절로

사경·찬불가·백일장 다채

우선 22일 동국대 중앙당에서는 서울 불교청년회와 좋은 벗 동경소리의 공동 주최로 '제 13회 연꽃 노래잔치 경연대회'가 열려 노래솜씨를 겨루며 찬불가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한다.

5월5일 월간 <불광>과 목야박물관 공동주최로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리는 '제7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가족전부가 나들이 삼아 참여해 볼만한 행사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5월 13일 오후 2시 동국대 중앙당에서 '제14회 청소년 전통 예술 경연대회'를 연다. 청소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국악연주, 탈춤, 고전무용, 농악, 판소리 등 전통예술분야에 걸쳐 초·중·고 학생들이 단체와 개인으로 각각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는 5월 6일 목동파리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글과 그림



어린이·청소년 단체들이 다양한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봉축문화행사 때 파라미터 청소년협회 주최로 열렸던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행사	장소	날짜	연락처
서예백일장	재주 남영고 체육관	4월21일	064746-9597
연꽃노래잔치	동국대 중앙당	4월22일	02730-9108
마야왕비 공주 선발대회	광명고교 강당	4월30일	031873-9113
사생대회 및 백일장	명성여고	4월30일	02452-8655
부처님게 편지쓰기	동대부중	4월30일	022217-8423
전국어린이부처님그리기대회	속리산 법주사	5월5일	029420-3300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짜롱 파리공원	5월6일	022646-6815
사경공모전	조계사	5월12일까지	02723-6165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	동국대중앙당	5월13일	02735-8165
참나 청소년예술대전	동국대 정각원	5월27일	02326-0248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연다. 또 파라미터청소년협회는 5월 12일까지 조계사에서 전국청소년 사경공모전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불심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종립학교들도 벌써부터 움직임이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광명여고는 26일 사경대회를 시작으로, 28일 오후 5시 의정부 시민회관에서 '봉축 음악제'를 열어 사바세계에 부처님오신뜻을 불음의 메아리로 알린다. 또 30일에는 반야심경 암송대회와 이색적인 '마야왕비 공주 선발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청소년 불자들에게 열띤 호응을 얻을 것으로 주목된다.

명성여고도 30일 탐들이와 교내봉축 법회에 이어 5월31일에는 봉축 사생대회 및 백일장을 연다. 동대부중은 30일 교내 학생을 대상으로 각자 머리 준비한 그림 업서와 편지지에 자신의 발원을 담은 '부처님께 편지쓰기 행사'를 기획해 우수 작품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주부 신행담

보시행의 공덕 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행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진정한 보시행 실천이라 믿는다. 5년전 영남대학교 학장 우학 스님의 '보시행 실천'에 대한 감동적인 법문을 듣고, 도반 한 명과 함께 환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결심했다. 그래서 영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대구시내에 있는 3-4개의 병원을 찾아가 환자들을 위한 봉사 계획을 털어놨더니 모두들 좋아했다.

이렇게 시작한 병원 봉사활동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영남대병원 7층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70세 할머니는 2년동안 목욕을 도와드렸던 일이 인상 깊었다. 그 할머니의 집안이 모두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우

손꼽아 기다릴 정도가 되었다.

내가 병원 봉사를 시작하지 어드섯 5년이었다. 그러다보니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보면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는지, 병의 상태가 얼마나 호전됐는지 또는 악화됐는지 이제는 몇마디 대화와 환자의 표정만 보면 대충 알 수 있게 됐다.

수많은 환자와 만났지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사람이 있다. 96년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와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환자였는데,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으면 대소변조차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우리 봉사팀에 무보수 간병을 부탁해와 내가 맡기로 했다. 간병을 맡은 첫날 대변을 봐야 한다



그림·이준석

더러움 깨끗함 본래 없구나

리들의 작은 봉사에 감동하셨는지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니는 영남대학교 학으로 가서 보시금을 내고 부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권유할 정도로 고마워했다. 다른 사람의 종교를 사랑할 줄 아는 이들의 모습에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지만 다른 병원에 봉사하러 갔을 때 그 병원에 입원한 한 개신교인은 단지 내가 불자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기지 않았다. 그래도 싫은 내색 하지 않고 몇 번씩 찾아갔더니 그 환자는 그제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다른 환자보다 더 정성껏 간호를 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뒤 오히려 그 환자가 종교의 벽을 깨고 우리가 봉사오는 날을

고 하길래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변비가 워낙 심해 도대체 변이 나오질 않는 것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내가 더 안타까워 환자의 양해를 구한 뒤 손을 향문 깊숙이 넣어 변을 끄집어 내자 그제서야 변이 쏟아져 나왔다.

봉사일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일과 부딪친다. 그럴때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不垢不淨)', 즉 원래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더러움 또한 깨끗한 것도 없다는 구절을 가슴속 깊이 되새긴다.

한달 정도 그 환자를 간병했는데, 봉사일이 끝난 그 젊은이의 어머니가 간호하러 병원에 올라오게 돼 봉사가 끝났지만, 더러움과 깨끗함의 경계를 없앤 깨달음을 내게 줬다는 점에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다. (계속)

도재원(대구광역시 북구 고성3가)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가재 뽑기' 등 생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파라미터 내달부터 캠페인

파라미터 청소년협회(회장 지홍스님, 이하 파라미터)가 5월부터 동물애호 운동의 일환으로 교계 단체들과 연계해 '동물학대금지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벌인다.

이같은 결정은 인형뽑기 게임기에 인형 대신 살아있는 바닷가재나 토끼 등을 집어넣고 끌어올리는 '동물뽑기 게임'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확산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들의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 이에 파라미터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뽑기 게임'의 보급 실태 조사를 통해 생명존중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팸플릿을 제작해 동물애호 캠페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파라미터 이병두 사무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정신을 사회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계 청소년 단체들을 비롯해 신학단체들과 연계해 청소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게임기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모집한다. (051)868-0750

전국 순회 예절마당 열어

김해 문화산수원(원장 선진규)은 15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함양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김천교도소, 속초, 논산, 강화 등 13개 지역에서 '예절서당'을 연다. 전국 읍·면 동단위의 마을회관, 사학 수련원 등을 장소로 섭외해 교육하는 '예절서당'에서는 훈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강사가 △한문교육 △예절교육 △환경 놀이 교육 △자율 토론 지도 등을 지도한다. (02)732-7272

청소년 단신

만화·영화 동아리 공모

부산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범상스님)은 5월 한달동안 '청소년 동아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건전하고 다양한 동아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만화·영화·댄스 동아리 등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를 선정해 장소 및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 부산양정청소년회관에서는 VJ 동아리 회원을

윤제학기자의 손 이야기 ⑩

■ 양손쓰기

진화론에서 보면 인간이 인간 다윈진 분기점은 직립 즉 손의 해방에서부터다. 이를 지키기 단 순하게 이해하면 '도구의 사용'이 인류 문명을 일구어왔다는 얘기가 되겠다. 하지만 '손의 해방'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손의 활동과 두뇌의 공명에 있다. '손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한다. 좌·우뇌의 고른 발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체의 균형을 위해서도 그렇다. 어린이가 일수록 손을 많이 쓰게 하자. 손놀림에는 전신이 반응한다. 운동할 때도 반쪽으로 치우치면 어깨선이 비틀어지는 등 부작용이 따른다. 그렇다고 양손의 기능을 무리하게 교정할 필요는 없다. 오른손잡이가 무체

양손 적절히 쓰면

지능 고르게 발달

를 쓸 때, 오른손만 쓰는 것 같지만 왼손은 굽기를 조절하는 정교한 기능을 발휘한다. 이 때 좌·우 뇌는 사이좋게 활동을 한다. 반대로 이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치매라는 늪도 찾아오게 된다. 손놀림의 둔화는 뇌의 기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녹차 마시기, 도자기 빚기, 설거지, 빨래, 악기 다루기... 양손을 쓰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손을 쓰자. 그것은 또한 인간의 위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다수의 기관"이라는 말도 있다. 손과 내장기관의 관련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 하겠다.

뇌의 연장으로서 손, 인체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손이 아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의 얘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열심히 손을 쓰자'는 것이다. 우선 양손을 조화롭게 써야

기자 모집

격주간 불교 포교지로 새롭게 태어난 만불신문이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격주간 5만부를 발행하는 만불신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불자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수습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 불교대학 졸업자 우대
- 경력기자
  - 4년제 대학 졸업자
  - 주간신문 2년 이상 경력자
  -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
  -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전형절차 및 선발인원

1차 - 서류, 2차 - 면접, 0명

접수기간 2001년 4월 30일 까지

접수방법 본사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4월 30일자 소인 유효)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접수처 및 문의 서울 서초구 서초 1동 1670-10 문화빌딩 3층 만불신문

전화 02)522-0101, 053)756-0101

※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만 불 신 문 사

第16回 不二賞 要綱

不二會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참신한 젊은 일꾼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연구·실천 2개 분야에 걸쳐 탁월한 가능성을 보인 젊은 인재를 발굴, 그들의 보다 앞찬 발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상을 제정 매년 1회 시행합니다.

1. 시상분야

- 가. 연구분야
  - 대학원 박사과정수로 이상의 학력자로서 대학에서 시간강사 이상, 조교수 이하의 직에 있는 자로서,
  - 최근 2년 동안 업적 중 불교학(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철학·문학·예술·비교사상, 기타)관계의 탁월한 연구 성과를 올린 40세 전후인 자.
- 나. 실천분야
  - 불교에 입문하여 7년이 경과한 불자로서,
  - 신행과 포교가 모범이 되는 자로서 연령 제한 없음.

2. 시상규모 : 각 분야별 1명 500만원

3. 후보자 제출서류

- 가. 후보자 추천 카드(분회 소정양식 : 별첨)
- 나. 자필이력서(사진 첨부)
- 다. 학력증명서 라. 경력증명서
- 마. 업적 증명용 연구물 또는 활동 내역서, 성적 증명서 바. 具足戒, 受戒 증명서
- 사. 추천서 3통(총장·대학원장, 기타 기관 및 단체의 장)

4. 접수기간 : 2001년 5월 31일까지

5. 심사 : 불이상 심사 위원회

6. 수상자 발표 : 불교계 언론 매체

7. 접수처 및 문의 : 불이상 심사 위원회 서울 강남구 개포 3동 186-1 개포빌딩 6층 Tel. (02)3411-6167~8 / Fax. 3411-6169

不二會

빅-뉴스 피로? 나에게 는 없다!

■ LIHIS 건강양말

- 건피부(특히 발이 갈라 지는 분)
- 피부노화 방지
- 숙취 해소

건강양말 특허출원번호 0043150 LIHIS

■ LIHIS 건강숫 양말

- 발냄새 제거
- 당뇨에는 더 이상 당이 안 오름
- 원적외선 차단

건강숫 양말 실용신안번호 0165970 LIHIS

상담문의

(주) 화 동 점 유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321-116 053)582-1245 전남·북 특판점 062)956-7676~7 동대구 특판점 053)982-4976

순수한 경민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운인佛字체'

"오복은 거저오는 세련된시대 용의 품을 꾸세요"



속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불자 담마(달마의 사)그림, 龍자그림(수명과 차관) 특별보시!  
2000년 대부원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한국 수묵화 방지 출원번호 인문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점 (korea art gallery) 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적,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 0058 E-mail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은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돌담아미타부처님영험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